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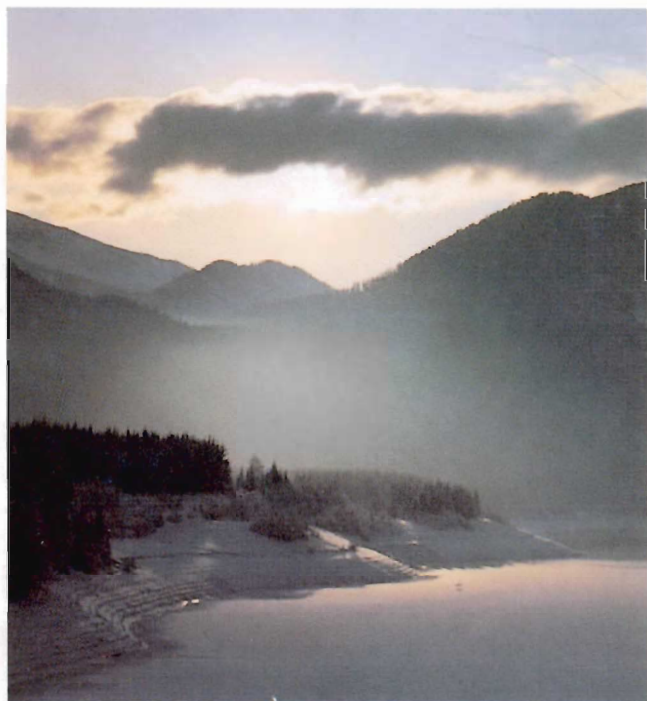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

3

1996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고린도후서, 여호수아



대한예수교
총회
장주회

3

1996

가정에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고린도후서, 여호수아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3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고린도후서 서론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두번째 서신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악행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은 고린도전서가 고린도교회에 전달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자기가 매우 사랑하던 교회 성도의 마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으로서의 바울을 보게 된다. 본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심지어는 죽음가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면 예루살렘교회 성도의 어려운 처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근거를 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피력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① 인사와 위로(1:1-11), ② 바울의 개인적 관심사(1:12-2:13), ③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2:14-7:16), ④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헌금 권면(8:1-9:15), 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10:1-13:13)로 나눌 수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4:18)

오늘은 우리 민족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서 독립을 위하여 항거하던 날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 자들 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의 입에 찢겨 죽는 비운 속에서도 십자가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키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예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가롯 유다는 은 삼십 냥에 주님을 팔았거니와 오늘날 우리들도 보잘 것 없는 허영, 쾌락 때문에 믿음의 지조를 내동댕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과제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활 중에 일부분만 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생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연 예서의 길을 거부하고 야곱과 같은 믿음의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피흘리까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걸어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말씀 전파에 열심을 다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라』(5:7)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 따로, 믿음 따로의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과 생활이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될 때 그 믿음은 송장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기쁨과 슬픔, 실패와 성공, 소망과 절망이 엇갈려 있는 이 앞날을 우리가 소망있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다짐할 것은 ‘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생활의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생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은 가장 이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믿음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신령한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축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주일) 화해의 복음

찬송 / 465장 본문 / 고후 5:11-21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5:1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계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탄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제물을 보내서 화목을 청하셨습니다. 화해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중대한 사명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어 화목의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간의 화목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또 자녀와 부모간의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에는 활력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의 직책을 통하여 교만의 담, 독선의 담, 거짓의 담, 가식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 속을 오직 예수님의 화목의 정신으로 채웁시다.

▶기도 /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담임목사님을 하루 속히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6:17)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많은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의 어떤 이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여 분별력 없는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에서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의 직책이 왜방받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비난받는 것은 괜찮으나, 사도로서 권면하는 이 권면을 꼭 받으므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후손과는 명예를 같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이요, 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어두움이요, 불법에 속한 자요 부정한 우상에 굴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둘은 연합이 안됩니다.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사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혼합주의에서 단호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별된 삶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시다.

▶ 기도 / 성별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7:10)

하나님의 종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죄악을 인해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던 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충격을 받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변화가 되었고 바울은 큰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간절해집니다.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되며 자신의 범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중히 여깁니다. 열심이 생깁니다. 범죄자를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보고 또 부서와 교회의 죄도 모두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개인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시다.

▶ 기도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참된 회개를 늦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새로 맡은 교안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8:15)

고린도교회는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문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디도를 보내어 고린도교회가 그 헌금을 마무리짓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교회의 모범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힘들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마게도냐교회보다 더욱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생활정도도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계기로 헌금하도록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의 헌금을 힘껏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즉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자원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균케 하려는 것입니다. 유여한 것으로 이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나의 부족을 이웃의 유여한 것으로 보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후한 헌금을 하게 하소서. 당회원들이 성령충만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8:21)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위하여, 디도를 포함해서 3명의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신뢰하는 디도 외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교회에서 피택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서 간절하게 충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믿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일꾼 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신뢰하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내는 세 사람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늘 조심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꾀방이 있을 것을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즉 전달자들이 일부를 빼돌렸다가 하는 비난이나 중상모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이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범사에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비난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행해야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교회 직원들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충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9:9)

예수님께서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행 20:35)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와 물질을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주어야 합니다. 바치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 보다 풍성히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부요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듯이, 주는 자에게는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보다 부요해질 것입니다. 헌금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잠 3:9). 즉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축복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업을 위해 바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우리의 재물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의의 열매를 더해 줍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의인의 의는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즐겨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고, 도와줄 때 영원한 의에 살게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6절) 추수의 원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를 돕는 헌금을 하면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베푸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풍성한 의의 열매를 얻기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의 가진 물질로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10:5)

인간 사이의 싸움인 육적 싸움 이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님과 같이 끊임 없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의 병기가 있어야 합니다. 싸움의 병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무기입니다. 그 무기중 하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병기입니다(잠 15:33).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인격적 능력이나 사회적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영적 싸움의 무기 즉 겸손, 온유, 사랑, 기도, 진리,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 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영적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 마음을 충동하는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인간적 방법은 아무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병기를 가지고 싸움의 목적을 바로 알아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11:2)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정결한 처녀'의 몸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정절은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은 믿음의 생명입니다. 성도가 진실하면 믿음이 살아서 주님께 열납되지만, 만일 진실치 못하면 주님의 열납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둘째, 깨끗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깨끗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세에 지위, 돈, 명예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귀들은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고자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로서 정결하게 준비하여 재림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정결한 처녀같이 우리의 신앙정절을 잘 지켜 주님오실 때 칭찬받게 하소서. 모든 찬양대원이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11:28)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신분과 막강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숭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듯이(시 126:5, 6), 바울의 눈물겨운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같은 숭한 고난을 감수하였을까요? 한 마디로 그것은 복음 전도 때문입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같은 고난들을 감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교회를 위한 염려도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근심한다 함은 곧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감수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모든 환난과 핍박에 결코 굴함이 없이 담대히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복음 전도를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삶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12:10)

당시 고린도교회는 지나치게 신비주의,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 모함하기를 바울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지만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한다고 주장하며 모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맞본 '주의 환상과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간증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하늘에 이끌려 가서 놀라운 광경을 직접 체험했음을 간증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주의 환상과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복음 사역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고쳐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후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깨달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 나의 지금 형편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 기도 /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교구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12:15)

바울의 자화자찬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단순히 바울을 매장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정당한 사도임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12절) 바울의 사도권의 부정은 곧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다른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며, 성도들을 위해 수많은 헌신과 사랑을 주었던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땀과 눈물로 개척한 교회이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과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의 전해준 복음까지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와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척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바울은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자신을 배척하고 모함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말씀으로 올바르게 잡아주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히 우리 교회에 보내 주소서. 남녀전도회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악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13:9)

성적 부도덕과 각종 분쟁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킨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만약 바울의 세번째 방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가불 강력한 권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경고를 밝힙니다. 이같은 징계의 선포는 고린도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시키는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 버리지 않았는가 염려가 되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을 잃어 버렸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직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다시 붙잡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방탕하고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권면하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11절)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을 나누며, 온전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며, 더불어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도 /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주소서. 이 민족이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1:7)

사람들은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당황하거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사명앞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과 권능을 주십니다(5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은 나를 항상 보호해 주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릴 때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대통령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시에 하나님이시니라』(2:11)

본문에서 라합은 죄의 땅 여리고에 속하였지만 죄와 우상숭배와 전통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마침내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가정이 되었고, 그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악 중에서 모든 주민들이 죽을 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듣고 깨닫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롬 10:17)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의 군대가 전멸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라합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 대상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듣고 깨달아 알게된 라합은 한결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간청하는 동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12, 13). 라합은 그녀가 참된 신으로 고백한 하나님께 애원하듯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구원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라합처럼 순수하고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 기도 / 이 세대와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게 하소서. 장애인들과 환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3:10)

환난 중에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회의를 느끼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침묵하시지만 결코 호홉을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확인된 것은 바로 '사시는 하나님' (10절)에 대한 의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배려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둘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또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또한 추방하여 말살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이며 우리들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 성경말씀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신장)을 하루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4:6, 7)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첫 숙영지인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고, 또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특히 기념비에 사용된 돌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강 한가운데에서 취해졌으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 마른 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비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각 지파의 대표가 각각 하나씩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일치단결하여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순조롭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된 것임을 기억케함으로써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또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옛생활을 요단강 바닥에 묻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교훈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찬양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섬기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 다시 할례를 ……』(5:2)

본문은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에 돌입해야 할(6장) 이스라엘이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를 지닌 의식을 거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은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할례를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였으니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큼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적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들은 부정한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의 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죄악된 정욕을 끊어 버리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전개하는 교회당과 선교센터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게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6:11)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여러 고성 정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난 후 계속되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단 대평원 서부지역의 견고한 방어기지로써 이중으로 건설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 전략이,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앞장 선 여호와와 법제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한 듯이 보이는 그 방법은 놀라운게도 어떤 군사 작전보다도 탁월한 승리의 결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바울의 고백(고전 1:25)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아무런 의혹이나 불평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순종의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성지연구소 설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6:25)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명성이 온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그 성을 모두 불사르고 다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기생 라합의 행동이 자신의 국가와 동족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는 것이며, 그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라합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그 일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라합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라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마 1:5).

이와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하소서.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전개하는 현지인 선교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412장 본문 / 수 7:1-15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7:11)

여리고성에서 거둔 승리의 기쁨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쉽게 점령할 것으로 믿었던 인근의 작은 성읍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패퇴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아간만은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의 화려함을 보고 욕심을 부려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이 좌절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해결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을 축복하사 중국인들이 우상숭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7:26)

아이성에서의 예상치 못한 패배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해결책을 간구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본래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목격자의 증언이 없어 그 사실을 판명하기에 불가능할 때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록 그 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나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잠 16:33). 물론 이러한 방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하시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가려내시기 위해 지파와 족속, 가족, 남자 등의 순서로 서서히 진행하셨다는 것은 범죄자에게 자진하여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에게 제비가 낙찰되기까지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밝혀진 아간의 범죄는 온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나아가야 할 기준이 되겠기에 엄정한 징계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생겨난 아골 골짜기를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모슬렘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8:1)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자들이 인생에서 때때로 패배를 당할 때에 그것을 다시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을 패배로 이끌었던 죄악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들로부터 죄악을 제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죄악으로 패배한 신자들은 이같이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전략을 짰으며, 최선을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긴 세월을 황량한 광야를 지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또 한 번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징계를 경험하고, 그 죄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과 믿음을 다하여 대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실패를 할 경우에,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여 다시금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아주 낙심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많이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 책에 ……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8:34)

아이성이 함락된 후에는 얼마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제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계곡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에 모든 율법을 새겼으며,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절반씩 섰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모든 율법을 낭독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순종하는 경우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다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승리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킴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고, 자원하여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생활을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9:15)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자,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은 자구책으로 서로 결속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약 5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곧 자기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낡은 포도주 부대와 자루를 가지고,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낡은 신과, 옷과 포도주 부대와 자루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자기 나라에서 떠나올 때는 새 것이었는데, 먼 곳에서 오다 보니 이렇게 헌 것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또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승리를 하고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가는 것같이 보일 때에 항상 이렇게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과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대하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잘될 때에 방심하거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으로 교포와 현지인들이 더욱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로 …… 여호와와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길는 자를 삼았더니』(9:27)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삼일을 진행하여 마침내 기브온 거민들이 사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은 이미 평화조약을 맺은 후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처신함으로써, 원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속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한 것”을 자기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을 길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원대로 행하라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길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경솔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주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현지인 선교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10:14)

성도들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에서 다섯 왕이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같은 승리의 원인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몇 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모리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승패의 결과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결과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10-1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늘을 열어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일단 개입하시면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셋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까지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태양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의 사역으로 일본에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10:40)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막게다 굴은 계속되어야 하는 가나안 점령의 승리에 대한 완전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 남방의 많은 성읍들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점령해나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행군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승리의 행군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25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강함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승리가 주는 축복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이 모든 승리의 역사는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고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개입하셨고, 친히 그 앞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를 진멸해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행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교훈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가 있는 곳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며, 죄를 멸하는 곳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죄를 이기게 하소서. 남북한에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11:15)

우리는 가나안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약 7년 정도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훗날 완전한 가나안 정복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남방지역에 이어서 북부 지방의 정복이 마무리 됨으로써 가나안 정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짜여진 셈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15절)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오직 그 말씀하신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같은 순종의 결과로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대원칙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느덧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 정착의 틀이 짜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는 말씀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승리!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순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전세계의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12:1)

본장은 정복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에 대한 문제들이 일단락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영도하에 얻은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6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얻어진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7-24절).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첫번째 정복에 관한 내용들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선택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400여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더 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을지라도 말쑥을 떠난다면 그들도 멸망한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쟁이 그쳐진 후에 가진 큰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3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4월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9 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 육체적, 정신적 순결에 관하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5장 27-32절

찬 송 : 525장, 431장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출 20:14)입니다. 현대를 흔히 3S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cience(과학), Sports(스포츠), Sex(성) 이 세 가지는 확실한 현대인의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는 Sex(성)은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고 쾌락의 미소를 흘리면서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의 문화와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음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몸과 마음, 애정과 말에 있어서 정결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외에 정욕에 끌려 부정한 이성간의 관계와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적인 애정표시, 문란한 교제, 추잡한 말, 교태, 음란한 친구와의 사귀고 음탕한 영화, 노래, 서적, 연극, 그림 등을 즐겨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자극을 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거나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과 독신에 얽매이는 서약 등도 이 계명이 금지하는 사항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성간의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을 한 것(마 5:28)이라고 가르칩니다.

1. 제7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 함축된 의미는 결혼의 법규준수를 요구합니다. 제7계명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 5:28, 엡 4:29, 골 4:6, 벧전 3:2, 살전 4:4, 5, 고전 7:2, 엡 5:11, 12). 부부는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므로 몸은 둘이지만 정신은 하나이며 생활도 하나여야 합니다. 일남 일녀는 결혼의 원리도 되고 창조의 원리도 됩니다 (창 2:18-25). 그리고 가정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에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 부정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창 39:9)?

현대 젊은이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육체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은 성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이 공포를 준다면 간음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오늘의 사조와 향락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일은 간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약 4:4).

3.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징벌하고 있을까요?(고전 6:9, 10)

이스라엘의 민법하에서 이 죄에 내려지는 형벌은 살인의 경우와 다름 없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욥도 이 죄를 가리켜 “중죄라,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욥 31:11, 12)고 했습니다. 이 죄악은 거의 은밀히 행하여지기 때문에 사람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히 13:4).

4. 간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1) 고린도전서 6장 16-20절

(2) 마태복음 5장 27, 28절

(3) 예레미야 3장 8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육체적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멸망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경건하게 지키고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고전 5:20).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정욕적인 사상과 생각, 음탕한 노래와 서적, 토색적인 그림이나 영화를 즐기는 것도 이 계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제139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음녀라고 했습니다(호 1:2). 예수님도 그 당시를 “음란한 세대”(마 12:39)라고 하였고,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하신 것입니다(계 17:1-15).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힘이 순결의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엡 5:3).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 10 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 재산 취득에 관하여

읽을 말씀 : 에베소서 5장 25-28절

찬 송 : 278장, 403장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재산보호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도적질이란 범죄는 살인, 간음과 함께 현대의 삼대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순종없이 우리 사회의 기초는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며 인간 공동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본래 도적이란 말은 옆으로 제쳐 놓는다는 ‘가납(Ganaab)’이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인류에게 운영,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의 취득은 조상의 유산과 일정한 노력으로 얻어집니다. 도적질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력한 입장에서 불투명한 거래로 얻어지는 재물, 속임수로 얻어진 재물, 함랑미달이나 과대선전, 과대포장,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투기, 착취, 횡령, 고리대금, 도박(말 3:8, 레 19:35, 시 37:21, 약 5:4, 출 22:25, 출 23:8) 등은 모두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재산의 취득은 욕심에서 비롯되며 정당하게 얻어진 소유일지라도 낭비하거나 부당한 지출과 죄악된 일에 쓰

는 것은 죄악입니다.

1.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잠 10:4)?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살후 3:10-12, 레 25:35-37, 잠 24:30-34).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일체를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성실이나 불공정(시 15:2-4, 미 6:8),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약 5:4)도 포함됩니다.

2.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 에베소서 4장 28절

(2) 말라기 3장 8절

도적질 중에는 하나님의 날(주일)과 하나님의 물건(십일조) 등을 훔치는 도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것을 맡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것' 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라고 하고 종교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치거나 빼앗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도적질한 자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1) 출애굽기 22장 3절

(2) 여호수아 7장 25절

(3) 고린도전서 6장 10절

제8계명을 통하여 발견해야 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말 3:8-9)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출 20:15). 세상에는 여리고 도성의 강도와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눅 10:30).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옷과 금은을 은밀히 취한 아간(수 7:20-22)과 돈케의 돈을 도적질한 가롯 유다(요 12:6)를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물을 불의하게 취하지도 말고(렘 22:13), 이에 대한 탐욕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마15:19).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말 2:10).

4.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은 무엇일까요(눅 11:3)?

(1) 누가복음 11장 3절

(2) 디모데전서 5장 8절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직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게 하라”(살후 3:10)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뿐더러(엡 4:28),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빌 2:4). 이 계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지켜주심을 믿고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버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살후 3:12).

제 11 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성도의 언행에 관하여

읽을 말씀 : 스가랴 8장 16, 17절

찬 송 : 321장, 327장

제9계명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출 20:16)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일곱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악의입니다. 2) 두려움입니다. 3) 부주의입니다. 4) 허영입니다. 5)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이기심입니다. 6) 타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7)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계명이 인류에게 교훈하는 것은,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쪽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헐박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탄(satan)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계명의 적극적인 뜻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은 “진실을 사랑하고 성실을 말하며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시켜 주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찾아봅시다.

(1) 요한일서 4장 1절

(2) 스가랴 8장 17절

(3) 잠언 11장 1절

2. 거짓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 마가복음 7장 21, 22절

(2) 요한복음 8장 44절

(3)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습니다. 그때 그 왕후 이세벨은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증거케 하여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한 일이 있습니다(왕상21:1-16). 제사장과 공회가 거짓 증거로 예수를 죽였습니다(마26:57-68). 참으로 거짓 증거는 무

세익스피어는 '네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허위를 말하지 않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하지 말고(약 3:10), 또 악평하지 말아야 합니다(잠 6:16-19, 눅 3:14, 시 15:3).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에 굳게선 성도들에게도 죄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접근해올 때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원리를 공부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 1) 거짓을 죄로 인정하십시오(요일 1:9).
- 2)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 3) 말을 적게 하십시오(잠 10:19, 약 1:19).
- 4) 경건되고 거룩한 일에 바쁘십시오(잠 20:19).
- 5) 참된 것을 말하고 그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엡 4:15).
- 6) 경건한 말을 하십시오 (시 19:14).
- 7)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마 7:1).
- 8) 나에 대한 어떠한 중상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무시해 버리십시오.
- 9) 기도하십시오 (잠 30:8).
- 10) 이 모든 것은 성령충만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잠 12:22).

제 12 과

제10계명

탐심에 관하여

읽을 말씀 : 출애굽기 20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7-10절

찬 송 : 412장, 444장

제10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다른 계명의 범죄 행위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인 것들이지만 이 열째 계명은 볼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죄입니다. 탐심은 죄의 욕망이며 죄악의 동기로서 외적인 행동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내적인 사고와 정서와 더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탐심이란 단어를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만이 행복을 누리는 자는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부하면 교만의 죄를 범하고 너무 가난하면 탐심의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

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잠 30:8)라고 했습니다.

1. 탐심은 남의 것을 함부로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도덕상의 불의요 종교상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골 3:5)?

이런 범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앙 성장을 불가능하게 합니다(딤후 6:3). 둘째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딤후 6:9).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엡 5:5).

2. 탐심은 사람을 낙심케 하고(고전 5:10), 미련케 하며(왕상 21:2-5),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약 1:15).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격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1) 디모데전서 6장 10절

(2) 하박국 2장 5절

(3) 마태복음 6장 19-21절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제148)에 탐심의 동기를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유에 불만을 품고(고전 10:10), 또 하나는 이웃의 소유에 질투하고 (갈 2:26, 약 3:14), 그리고 마침내는 이웃의 것에 애착심을 갖는 그것입니다(롬 7:7, 신 5:21).

3. 탐심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1) 로마서 7장 8절

(2) 자족의 교훈을 배우십시오(빌립보서 4장 12, 3절).

(3) 드리는 것을 배우십시오(잠언 21장 26절).

(4) 시편 119편 36절

(5) 누가복음 19장 1-10절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눅 12:15)고 하셨습니다. 실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탐심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할 것입니다(잠 28:16).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딤후 6:7, 8, 욥 1:21). 그러므로 바울은 친히 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빌 4:11, 12). 사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요리문답에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니라'(제80문)고 했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13 과

부모들에게 드리는 권면 -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읽을 말씀 : 신명기 6장 6, 7절

디모데전서 3장 5, 6절

찬 송 : 234장, 304장

20세기 문명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양육을 받을 시기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정의가 결핍한 인물이 되어 버리는 사태가 유행병처럼 만연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자녀들의 탈선에 대한 책임은 그들보다 부모에게 더 추궁해야 옳다고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낭패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모들이 성경적인 모범생활에서 이탈한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모자신이 먼저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훈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장 숭고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귀중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과 축복,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 부모들의 손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와 지상국가의 탁아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마땅히 기도와 보살핌으로 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1. 부모에게 양도된 의무 중에 첫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신 6:6, 7)?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교육을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 부모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끊임없는 관심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계의 임무는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그들 나이에 가장 알맞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방법은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법도 익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합니까?

(1) 에베소서 6장 4절

(2) 골로새서 3장 21절

좋은 교육에는 좋은 시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교육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언행의 불일치에 민감하고 위선을 특히 경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엡 5:18).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골 3:16). 이와같이 부모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가르치는 일과 모범을 보이는 일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 잠언 22장 15절

(2) 잠언 29장 15절

자녀교육에 관한 규율은 십계명처럼 간단, 명확, 분명, 그리고 확실해야 합니다. 어릴 때 순종심을 가르쳐주는 일이야말로 그 장래에 두고 두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거되지 못한 아이는 법없이 구는 어른과 같습니다. 집안의 어른에게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어린이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꼭 받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자식을 망치게 합니다. 자녀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잘 통제시키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요 1:5)?

부모는 자녀의 영육간의 행동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어 달린다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며, 그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굴복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그 분위기를 온 가족이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 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